

2021년 지방 간호직/보건진료직 공무원 시험

2021년 6월 5일 (토) 시행

◎ 간호관리

영역	세부내용	문항	영역	세부내용	문항
간호관리의 이해	과학적관리론 vs 인간관계론	1	통제	질 관리 접근 방법(과정적)	1
	행정관리론	1		질 향상 활동방법(PDCA)	1
기획	재물관리-재무상태표	1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1
조직	조직 구성요소-분권화	1	간호단위관리	감염관리	1
	직무분석방법	1	법과윤리	의료인의 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1
인사	간호전달체계 유형	1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업무	1
지휘	동기부여(내용)이론	1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1
	브롬의 기대이론	1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1
	셀프리더십	1		간호서비스 마케팅	마케팅믹스 전략
	터크만의 팀 발전과정	1	Total	20	
	권력의 유형	1			

☞ 2021년 시험의 경우, 2020년처럼 연속 2년간 기존의 지방직 공무원 시험과 달리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그중에서 “지휘”와 “법과 윤리”에서의 출제 비중이 유난히 높았음. 또한, 기존의 서울시 문제처럼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지문이 많이 반영하였음.

☞ 전반적인 문항의 난이도는 조금 높은 편으로 사회적 이슈를 폭넓게 담고 있으면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주요 개념 보다는 그 개념에서 파생되는 지엽적인 개념(기획의 재무상태표의 세부 사항, 지휘의 셀프리더십의 전략 등)을 다루거나 평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라 당황할 수 있었음.

☞ 특히, “지휘”에서의 “터크만의 팀발전 5단계 모델”, “법과 윤리”에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의 업무”와 “개인정보 가이드 라인”은 기존 지방직의 출제 특성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내용으로 기출 중심의 요약 공부에 익숙했던 수험생에게는 점수 취득의 어려움을 가져왔을 것으로 보임.

☞ 해당 과목 취득 점수는 2018년~2020년 시행한 시험에 비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기존 대방고시학원 수강생들의 경우 기본이론 강의시 강조했던 개념과 사회적 이슈라고 언급했던 개념을 주의깊게 학습하였다면 문제 풀이시 상대적으로 덜 힘들었을 것으로 보임. 향후 기본이론 강의에서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더 강화할 예정임.

◎ 지역사회간호

영역	세부내용	문항	영역	세부내용	문항	
지역사회 간호 서론	2차예방	1	환경보건과 재난관리	재난관리단계(대응)	1	
	오렘의 자기간호요구	1		노년부양비(계산)	1	
지역사회 보건행정	지역사회인력과 법적근거	1	지역사회 간호사업	장기요양서비스	1	
	진료비지불보상제도 (행위별 수가)	1		근로자 건강관리 구분	1	
	사회보험 종류	1		근로자 건강진단	1	
지역사회 간호과정	오마하 간호진단	1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학습이론	1	
	MATCH	1		역학 및 질병관리	특이도(개념)	1
	지역사회 간호 수행(감독)	1			신뢰도 확보방법	1
	보건사업평가	1			기본감염재생산수(개념)	1
가족간호	가족사정도구	1	역학연구방법		1	
Total					20	

☞ 2021년 시험의 경우 2020년과 큰 차이 없이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지역사회 간호과정”과 “역학 및 질병관리”에서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 전반적인 문항의 난이도는 평이한 편으로 전체 문항의 난이도는 높지 않으나 기존에 주목되지 않던 개념들인 “지역사회 간호과정”에서의 “MATCH”, “역학 및 질병관리”에서의 “신뢰도 확보방법”과 “기본감염재생산자수”에 초점이 맞추어져 기존의 지방직 시험과 달리 다소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개념이 수험생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음.

☞ 2020~2021년 사회적 이슈였던 코로나19때문에 “역학 및 질병관리”에서의 감염병 관련 문제 출제가 예상되었으나 상대적으로 기본 개념 확인 위주로 출제되었고, 전체적으로 기본개념을 포괄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들이 많았음.

☞ 수험생들의 해당 과목 취득 점수는 2020년 시험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임

-> 기존 대방고시학원 수강생들의 경우 기본강의 시 언급했던 개념들과 기출문제 풀이시 “이제는 다시 출제될 시점이다”라고 언급했던 개념들(오마하간호진단, 역학 연구방법 등)에 집중해서 공부를 했다면, 고득점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 최근 2개년을 살펴볼 때, 과거의 지방과 서울의 구분되는 출제 특성이 차이가 없어져서 향후에는 지엽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기본서에 충실한 학습이 필요함